

보도자료(2019.03.26)

(문의 : IR팀 이선 대리 041-550-7742)

SK 바이오랜드, 아토피 치료제로 줄기세포 사업 본격화

- 강스템바이오텍과 국내 독점판매 및 기술전수 계약... 내년 세계 최초 상업화 목표
- '화장품 원료 기업' 인식에서 벗어나 피부, 조직 등 '생체재생바이오' 전문기업 위상 강화

SKC의 자회사 SK 바이오랜드(대표 이근식)가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를 앞세워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중심 사업에서 피부뷰티재생, 신체건강재생, 조직재생 등 '생체재생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변화해나간다.

SK 바이오랜드는 25일 서울 강남구 강스템바이오텍 본사에서 강스템바이오텍과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국내 독점판매권/통상실시권 설정 및 기술전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 바이오랜드는 강스템바이오텍에서 개발하는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텝 AD주' 국내 독점판매권을 확보했다. 동시에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원천기술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텝 AD주'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이다. 한번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장기간 이어진다. 면역체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내성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적다.

SK 바이오랜드는 강스템바이오텍과 함께 '퓨어스텝 AD주' 임상 등을 빠르게 마무리해나간다. 내년 상업화가 목표다. 현재 강스템바이오텍은 전국 11개 대형 의료기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중 가장 앞선 상태로,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 최초 상업화다. 초기에는 강스템바이오텍이 생산하고 기술 전수 이후에는 SK 바이오랜드가 직접 생산한다.

SK 바이오랜드는 줄기세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2017년 전담조직을 만들어



유망기술을 물색해온 SK 바이오랜드는 2018년 12월 메디포스트와 발목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및 독점판매 계약을 맺으며 사업에 진출했다. 이번에 줄기세포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한 SK 바이오랜드는 줄기세포 사업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SK 바이오랜드는 강스템바이오텍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생산 설비를 구축해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자로 도약해나간다.

SK 바이오랜드 관계자는 "SK 바이오랜드에는 치과용 콜라겐 멤브레인 등 잠재력 있는 사업이 많지만 화장품 원료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면서 "줄기세포 치료제나 골이식재, 콜라겐 중심의 조직재생, 화장품 원료나 마스크팩 시트 중심의 피부뷰티재생,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신체건강 재생으로 사업을 재편해 SK 바이오랜드를 생체재생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이근식 SK 바이오랜드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서울 강남구 강스템바이오텍 본사에서 이태화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왼쪽 일곱번째)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판권 및 기술전수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